

“모성 파괴 현실 극복할 터”

여성노동자회 3대회장 한명희씨

인 터 뷰

여성노동자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한명희(36)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88년 창립 뒤 4년동안 여성노동자회를 이끌어온 1, 2대 이영순 회장에 이어 3대회장이 된 한씨는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여성노동자 문제를 주요 사회문제로 끌어 올려 풀어나가겠다”고 의욕이



콘트롤데이타 노조위원장때 해고돼

“구사대·경찰 폭력 반드시 추방해야”

대단하다.

여성노동자회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둘 사업은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 노동권 쟁취. 아직 여성노동자운동이 다른 운동에 비해 조직과 전략이 뒤지긴 하지만 뿌리깊은 남녀차별과 모성파괴 현실을 하나하나 극복해 “평등한 노동, 평생직장, 건강한 모성쟁취를 이룩해 나가겠다”고 한씨는 다짐했다.

또한 여성단체연합, 부산·대구·광주·인천·부천 등 지역여성노동자회와 연대, ‘범여성 구사대·경찰폭력 추방운동’도 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마산에

있는 한국스타(주)에서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구사대의 폭력으로 아기를 사산한 사건이나, 올초 70여명이 해고된 크라운전자에서 빚어졌던 경찰폭력과 같은 여성노동자 폭행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폭력 추방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한씨는 말했다.

69년 고교재학중 취업, 노동자가 된 한씨는 82년 다국적기업 콘트롤데이타 노조원으로 노조활동을 시작했고, 85년 콘트롤데이타 노조위원장 재직때 해고된 해고노동자다. 여성노동자회 1, 2대 부회장을 지냈다.